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• 생산적 금융	
				• 포용적 금융	
				• 신뢰받는 금융	
	보도	2019.3.21.(목) 행사 종료시	배포	2019.3.20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진창(02-2100-2830)		담 당 자	김성진 서기관(02-2100-2831)	
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손주형(02-2100-2860)			황기정 사무관(02-2100-2832)	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창국(02-2100-2650)			이용준 사무관(02-2100-2835)	
	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 김성조(02-2100-2920)			이한샘 사무관(02-2100-2861)	
	기재부 금융세제과 장영규 과장(044-215-4230)			박석훈 사무관(02-2100-2864)	
	법무부 법무심의관 전태석(02-2110-3520)			송병관 서기관(02-2100-2651)	
				오형록 사무관(02-2100-2937)	
				전동연 사무관(02-2100-2936)	
				권영민 사무관(044-215-4231)	
				정혜림 사무관(02-2110-3504)	

## 제 목 : 관계부처 합동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 발표

“미래성장성 · 모험자본 중심의 「**혁신금융**」을 통해  
**기업과 금융**이 함께 **혁신성장**을 이끌겠습니다.”

①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**혁신 중소중견기업**에 향후 3년간 **100조원**의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.

■ 기업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**특허권, 생산설비, 재고자산** 등을 모두 담보로 하여 대출할 수 있는 **일괄담보제도**가 도입됩니다.

■ 과거 재무성과 중심의 여신심사에서 벗어나, 혁신기업의 **기술력과 미래 성장성**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
② 코스닥 상장문턱을 美 **나스닥 수준**으로 낮추어 3년간 바이오 · 4차산업 분야 **80개 기업**의 **상장**을 추진하겠습니다.

■ **성장지원펀드** 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규모를 **대폭 확대 (8조원→15조원)** 하겠습니다.

■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고,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‘**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**’를 확대하겠습니다.

③ 정책금융을 통해 선제적 산업혁신을 지원하여 7만개 주력산업·서비스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 고용창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.

■ 주력산업 중소·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.

\*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마련 → 설비증설·운영, M&A, R&D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

■ 헬스케어, 관광,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6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금융위원회(위원장 최종구)는 3월21일(목)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제 ‘혁신금융 비전선포식’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을 발표하였다.
-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, 벤처기업,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.
- 정부는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“가계금융·부동산담보” 중심에서 “미래성장성·자본시장” 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,
  - 이를 위해, ①대출, ②자본시장, ③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.

####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·공유하는 「혁신금융」 구축

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: 부동산담보 → 미래성장성	
대출	① 일괄담보 정착 → ② 미래성장성·수익성 평가 인프라 마련 → ③ 포괄적 상환능력 심사
모험자본 육성	
자본시장	①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     ② 코스닥·코넥스시장 활성화
	③ 자본시장 세제 개편      ④ 금융감독 혁신
선제적 산업혁신 지원	
정책금융	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      ②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

□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-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·중견 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,
-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·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,
-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7만개 주력산업·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.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“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.”고 강조하면서,

- “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·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※ 별첨1 :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 기대효과 인포그래픽

별첨2 : 금융위원장 발표문

별첨3 : 관계부처 합동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